

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 학습정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Daily Life Experiences of Adolescents
Being Raised by Their Grandparents

: Focusing on the Practical Experience of Learning and Emotional Support Services
Provided by a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 교 수 박 경 애**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조 교 수 이 무 영***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부 교 수 강 기 정

Dept. of Social Welfare, Sehan Univ.

Assistant Professor : Park, Kyung-Ae

Dept. of Social Welfare, Daeduk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Lee, Moo-Young

Dept. of Christian Welfare, Beakseok Univ.

Associate Professor : Kang, Ki-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shall be to achieve an understanding of learning and emotional support services for adolescents being raised by their grandparents . In-depth interview and qualitative methodology were used to find changes in the service experiences of 10 adolescents being raised by their grandparents by analyzing their experiences at a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1 agency in the Chungnam area was selected as a model for its program for adolescents being raised by their grandparents. Ultimately, 78 items as sub-concepts, 44 items as sub-categories, and 4 items as subjects were identified. Specifically, these included school achievement, peer group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hip and significant others. In conclusion, they were found to experience slower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tend to withdraw in social situations. They were also found to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with other people and with school achievement. However, it was shown that these adolescents have made positive changes after participating in a program involving a family coach who supports and provides services for them. Also, they were found to have experienced psychologically changes, and improved in their school achieve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s. Consequently, we will require more effort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adult role models, counseling intervention, and social support for them.

▲주요어(Key Words) : 조손가정 청소년(adolescents being raised their grandparents),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research), 질적 연구(qualitative methodology), 학습정서지원 서비스(learning and emotional support services)

* 이 논문은 2011년 추계학술대회의 분과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 박경애 (E-mail : kap1213@db.ac.kr)

*** 교신저자 : 이무영 (E-mail : young10@dddu.ac.kr)

I. 서론

조손가정은 2000년대까지 가족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으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손가족은 전체가구의 0.36%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가구의 0.7%로 나타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가족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과 그로 인한 조부모의 아동부양 증가는 언론매체의 관심을 받으면서 집중 보도 되었는데, 조손가정이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조부모 세대와 손자녀 세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때문이다. 조부모 세대는 경제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면서 친부모와의 갈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건강문제를 안고 있다(Green, 2006; Choi, 2006; quotation from Kim, 2009).

조손가정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의존성이 높은 노인과 아동·청소년으로 가구가 구성되어 있어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농촌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건강문제, 손자녀의 건강, 학습부진, 일상생활유지 관리,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등 매우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조부의 양육태도는 손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와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Kim, 2004)를 통해 이들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고령으로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고 저소득층에 속하는 농촌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학습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긍정적인 성인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농촌지역 조손가정 청소년에게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Bae & Chung, 2009).

이와 같이 조손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형태의 대두와 이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반영하듯 국내의 조손가족 연구 또한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양육자인 조부모와 손자녀 연구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별된다. 먼저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조손가족 형성 이후의 조모의 생활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Gyu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2003; Kim, 2002; Kim & Kim, 2004; Kim, 2006),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 탐색(Ok, 2005; Choi, 2006)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들 조손가정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적인 방안 모색에 기여를 했으나, 이들의 또 다른 삶의 축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또 다른 연구축인 이들 손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이들 연구는 손자녀들의 심리·정서상태(Huh, 2004; Yang, 2003) 및 학교생활 변화 등(Kim, 2004; Choi, 2006; Rue & Cho, 2007), 성인아이 현상(Lee, 2007), 외로움(Choi & Lee, 2007)에 대한 연구로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대체적으로 이들 연구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조손가정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만, 정서 및 심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의 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손가정의 손자녀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과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와 학업적 성취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나 조손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과 비교 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Ok, 2005; Choi, 2006)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개인의 경험은 다양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개인의 경험은 유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손가정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손가정 손자녀의 실제적인 경험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조손가정의 손자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어도 대부분 양적 연구(Sung, 2001; Jeon, 2007; Na, 2008)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조손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그 경험의 독특함을 밝히고자 하는 질적 연구(Jeong, 2004; Jeong, 2007; Han, Joo, & Jeong, 2009; Ryu, 2011)가 시도되었으며,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7; An, 2009; Kim, 2009)를 통해 기존의 양적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 조손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부모와 손자녀 각각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보다는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조손가정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2010년 5월에 조손가족 관련 생활민원제도 개선 과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으로 당해 10월에는 조손가족 통합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산, 인천, 충남, 전북 등 권역별 4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 “조손가족희망사다리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조손가족을 위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시·도에서 예산 집행 및 지도와 점검을 담당하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조손가족희망사다리사업 운영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방문사업으로 배움사다리(손자녀를 위한 학습정서지원 서비스), 키움사다리(조부모를 위한 생활가사지원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움사다리 사업은 조손가족 자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학습지원을 통해 손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유발, 자기 학습 관리를 통한 학습부진 격차 해소,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한 정서지원 및 심리적 어려움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배움지도사가 주 1회 이상(방문시 2시간 기본) 가정방문을 통해 손자녀의 자기학습관리, 학습지도, 정서지도로 이루어져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충남지역에서 실시된 배움사다리 시범사업을 통해 학습정서지원 서비스를 경험한 조손가정의 청소년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이들 조손가정의 부적응적인 특성에 대한 기존연구들로 인해 이들 조손가정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가능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들 조손가정의 손자녀들의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현재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경험, 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조손가정의 개념 및 특성

우리나라에서는 조손가정을 별도로 구분하는 공식적인 개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부모-손자녀 가정, 조손가정, 조손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가장세대, 조부모 손자녀 세대, 조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으로 불린다(Shin, 2004; Han, 2010).

조손가정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은 조손가정을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나,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국내 연구에서는 조손가정은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과 실제로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조부모가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생활전반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가정이라는 정의와(Park, 2005; Lee, 2006), 부모 없이 조부모와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생 이하의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라는 정의(Gyu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2003; Han, 2010)로 구분 된다.

조손가정에 대한 정의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를 기준으로 조손가정을 가정해체 등으로 청소년이 부모와 실제로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청소년의 의식주 문제 및 생활전반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조손가정은 대체적으로 빈곤에 의해 발생되며, 또한 빈곤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근로나 사업, 재산 소득으로 분류되는 1차 소득이 가장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부모와 양친부모가족과는 달리 조손가정은 소득의 절반 이상이 가족과 이웃 등으로부터의 사적 이전이며 다음으로는 공공부조나 기타 수당 명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소득원천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손가정의 주요 소득인 사적 이전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기 어렵고 낮은 소득 수준의 가족들 간의 이전은 더욱 불안정하며 낮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조손가정의 주 양육자인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상태, 저학력과 고령, 직업유형 중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의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은 1차 소득인 근로소득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Yoon & Jang, 2011). 특히, 이들 조손가정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불리한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산물이라는 점이다. 즉 자녀세대가 빈곤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물이며, 자녀세대의 빈곤은 현재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세대의 전 생애과정에 걸친 빈곤과 사회적 배제 경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Han, Joo, & Jeong, 2009).

2. 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대부분의 조손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양적 접근을 통해 조손가정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측정한 뒤 적응유무를 파악하여 결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조손가정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조손가정 아동들을 '취약함' 또는 '문제 성향'이라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Sung, 2001; Kim, 2004; Choi, 2006; Choi & Lee, 2007; Lee, 2007; Lee & Choi, 2007).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조손가정 청소년들의 환경적 변화에의 적응, 부모부재에 대한 심리적 적응, 학업 부진 및 학교생활적응, 조부모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조손가정 청소년들은 새로이 형성된 조손가정이라는 가정유형에 적응하기까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해체 경험과 동시에 마음을 추수할 여유도 없이 낯선 곳,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다(Choi & Lee, 2007). 둘째, 조손가정 손자녀들은 부모부재로 인하여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들은 우울, 불안, 철회 등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Forehand, Middleton, & Longo, 1987; quotation from Seo, 2010)을 경험하며, 공격성 및 충동성이 높으며(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009), 부모의 부재에 의해 남겨진 허탈감 뿐만 아니라 두려움, 당혹감, 분노 또는 숨겨진 분노 등으로 인해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quotation from Yoon and Jang, 2011). 셋째, 조손가정 손자녀들은 학업 부진 및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이들 조손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2010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초등학생 손자녀의 방과 후 보육은 조부모가 주로 보육한다는 응답이 7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학원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31.1% 수준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족 및 양부모가족의 자녀에 비해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학습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은 혼자 공상을 하고, 불안해하거나 등교거부 등의 행동을 통해 학교나 교사를 괴롭히기도 하고, 학업 중단 및 포기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oi, 2007). 마지막으로 조부모와의 관계는 조손가정 아동들이 실제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조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사를 하는 등 성인아이 현상(Lee, 2007)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양육자인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손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가함으로써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손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상실감이 또 다시 조부모에게서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져 아동의 내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Oh, Chang, & Cho, 2006).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조손가정의 청소년의 입장에서가 아닌 외부의 시각에서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이들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낙인찍기 쉽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에 있어서 이들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 조손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에 속한 자들의 삶에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감안해 볼 때, 이들 조손가정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삶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들이 시도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질적 연구는 단순화와 한계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함으로써(Cho, 2001) 그들의 시각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의 의미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조손가정 청소년의 삶의 경험들이 최소화 및 단순화됨으로써 이들의 삶의 구체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세계로 들어가 조손가정이라는 독특한 삶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설정

연구 참여자는 충청남도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운데 조손가족 청소년을 위한 학습정서지원 서비스인 배움사다리를 시범운영하는 1개 센터를 선정하였으며, 담당 건강가정사를 통해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비스 대상 청소년 중 이에 동의한 청소년 10명을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연령분포는 14세 40%, 15세 20%, 16세 4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5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모두 중학교 재학 중이었다. 가족구조는 '조부모+동생 동거형 10%', '조모+형 동거형 10%', '조부모+형 동거형 10%', '조모+(사촌)동생 동거형 20%', '조모+본인 동거형 10%', '조모+(사촌)오빠 동거형 10%', '조모+누나+동생 동거형 10%', '조부모+본인 동거형 10%', '조부모+오빠+동생 동거형 10%'인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와 동거하는 형태가 40%인 반면, 조모와 동거하는 형태는 60%여서 상대적으로 조모와 동거하는 청소년이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부모 외에도 동생 또는 사촌 동생이나 누나 또는 형과 동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가족 구성원의 수는 2명 10%, 3명 40%, 4명 30%, 5명 10%, 7명 10% 인 것으로 평균 가족 구성원의 수는 3.8명이었다. 조모의 연령 분포는 60세 이하 10%, 60세~64세 20%, 65세~70세 30%, 71세~75세 30%, 80세 이상 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의 연령 분포는 60세~64세 10%, 65세~70세 20%, 70세 이상 10% 인 것으로 조사되어 조모의 연령 분포가 보다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조모의 평균 연령은 67.9세였으며, 조부의 평균 연령은 68세인 것으로 나타나 조부와 조모의 연령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부모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조모의 경우 '무학'과 '초졸'이 각 50%를 차지하였으며, 조부의 경우 '무학' 10%, '초졸'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50% 정도는 '중'이었으며, 나머지 50%는 '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충청남도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조손가족 청소년을 위한 학습정서지원 서비스인 배움사다리를 시범운영하는 1개 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소년 10명을

Table 1.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s Interviewee

(N=100)

참여자	가족 관계	연령	성별	경제수준	학력
사례 1	본인	16	남	하	중2
	동생	13	여		초6
	할머니	70	여		무학
	할아버지	70	남		무학
사례 2	본인	16	남	중	중3
	할머니	74	여		초졸
	형	18	남		고등학교 재학
사례 3	본인	14	남	하	중1
	할아버지	69	남		초졸
	할머니	59	여		초졸
	형	17	남		고등학교 재학
사례 4	본인	15	여	하	중2
	동생	13	여		초6
	할머니	81	여		무학
사례 5	본인	14	여	중	중1
	할머니	62	여		초졸
	사촌동생	3	남		무학
사례 6	본인	14	여	하	중1
	할머니	67	여		무학
사례 7	본인	15	여	중	중2
	할머니	68	여		무학
	사촌오빠	18	남		고등학교 재학
	오빠	17	남		고등학교 재학
사례 8	본인	16	남	하	중3
	동생	14	여		중1
	할머니	71	여		초졸
	누나	19	여		고등학교 재학
	누나	18	여		고등학교 재학
사례 9	본인	14	여	중	중1
	할아버지	69	남		초졸
	할머니	67	여		무학
사례 10	본인	16	여	중	중3
	동생1	14	남		중1
	동생2	12	여		초5
	할아버지	64	남		초졸
	할머니	60	여		초졸
	오빠	19	남		고등학교 재학
동생	9	여	초등학교 재학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청소년들은 배움사다리사업의 대상자로서 주 1회 이상 배움지도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자기학습관리(자기 학습관리계획능력 및 습관형성 지도, 학습수행 점검), 학습지도(학습능력별 학습지도 및 독서지도), 정서지도

(일상지도, 가족문화서비스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 이들은 담당 건강가정사를 통해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였으며 그들의 생활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2011년 8월 1일

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하였고, 면접 장소는 참여자와의 협의 하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였으며, 주로 참여자의 집 근처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면접 도구는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의 삶의 경험에 관한 질문들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s)에 기초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면접은 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1회 면접 시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학습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경험에 관한 것으로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녹취내용은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연구자가 옮겨 적었다. 이밖에 빠진 내용이나 연결이 안 되는 부분, 의문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밖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연구기간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자의 신분을 밝혔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참여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서면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날인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별로 수집된 자료를 주제별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Lincoln, & Guba, 1995). 먼저, 면접에서 참여자가 표현한 것을 그대로 서술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 있는 표현에 표시를 하였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 의미 있는 표현 중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공통된 요소를 확인하였다. 다음,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요소들을 해석하여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나타난 범주들을 관계 문헌을 참고하여 고찰하였다. Lincoln and Guba(1995)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판단하는 척도를 신뢰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신뢰성의 검증을 확보하기 위해 멤버 체크(member-check)와 동료 심사(peer debrief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멤버 체크는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인터뷰 내용 및 참여자에 대해 기술한 것을 참여자에게 검증을 받는 방식으로 면접 말미에 실시하였다. 동료심사는 질적 연구방법과 연구주제에 이해가 있는 자로 가족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 의미와 본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

하여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공통적인 요소를 확인하여 하위범주화 시키고,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요소들을 해석하여 최종적인 범주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78개의 하위개념, 44개의 하위범주,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4개 범주의 구체적 내용은 '학습성취도', '또래관계', '가족관계', '의미 있는 타자'이다.

1. 학습성취

학습성취와 관련된 범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의 하위범주와 19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청소년들은 학습성적이 좋지 않거나 학업에 무관심하였으며, 학습동기가 부족하고 심하게는 학업에 대한 거부반응까지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학업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학습습관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1) 학습성적이 좋지 않음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학습성취에 대해 좋지 않거나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인식한다.

초·중학교 초반에는 1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졌어요(사례 1)

할머니도 성적이 떨어져서 자꾸 뭐라고 하시고... 좀 스트레스 쌓여요(사례 2)

시작하기 전 1학기 때 성적이 83등이었어요. 수학이 너무 싫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쑥스럽지만 공부도 안하고 그랬죠(사례 4)

육상선수라 운동부여서 수업을 많이 못들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진도를 잘 못 따라가요(사례 5)

머리가 나쁜가 봐요. 선생님이 공부 끝나면 남아서 공부시켜줘요. 그래도 성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사례 6)

(2) 학습동기가 결여됨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업에 관심을 갖거나 자극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학습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어 있거나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동기 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나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열심히 하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하는 것도 재미없는데, 관심을 갖는

Table 2. Schoolwork Achievement

구분	개념	하위범주	범주
개입 전	· 성적이 좋았으나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음 · 수업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진도를 따라가지 못함	· 학업성적이 좋지 않음	학 업 성 취
	·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언급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함 ·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고, 마음도 따라가지 않았음 · 그냥 공부하라니까 하는 것일 뿐임 · 공부보다 노는 것이 더 좋고 재미있음	· 학습동기가 결여됨	
	· 수업과제를 해 가지 않았음 · 성적도 좋지 않고 공부하기도 싫었음 · 책상에 앉는 것이 힘들만큼 공부가 따분하게 여겨짐 · 공부 얘기만 하면 짜증부터 나고 스트레스를 받음	· 학업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음	
개입 후	· 책 읽는 것조차 재미있음 · 수업내용을 이해하게 됨 · 시험결과에 상관없이 몰랐던 문제를 이해하게 됨	· 학업에 대한 흥미가 생김	
	· 시험성적 등수가 올라갈 것 같음 · 시험을 보면 잘 볼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됨 · 한자리 수 사칙연산이 어려운 상태에서 두 자리 연산이 가능해짐	· 성적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김	
	· 쓰고 외우고를 반복하게 됨 · 책상에 앉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	· 학습 습관이 생김	
	· 성적이 올라가니까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싶음	·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됨	

사람도 없으니까 별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사례3)

예전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려는
마음도 잘 안 생기고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사례 7)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사례 9)
공부보다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밌고 좋아요. 학교
가는 건 매일 똑같아요. 친구들과 만나는 거 빼곤 재미없
어요(사례 10)

(3) 학업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음

청소년들은 지능이 낮거나 또래에 비해 학업성적이 나
쁘다거나 또는 선생님이 무관심하다거나 할머니나 다른 사
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업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파생적으
로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숙제를 잘 안 해가요. 집에 와도 공부하기가 싫고, 할
머니도 뭐라 하지 않으세요(사례 1)

숙제요? 공부요? 하기 싫어요. 왜 해야 하는지 모르
겠어요(사례 2)

학교에서도 남아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또 집에 와서
도 나머지 공부하라는 거죠? 공부에 관심도 없고 하기
도 싫어요(사례 4)

기초 공부가 어려워요. 영어 단어 외우기조차 싫어요

(사례 5)

공부, 숙제, 시험 모두 어렵고 싫어요. 공부 안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사례7)

공부해봤자 소용없는데, 그걸 왜 해야 하는데요?(사
례 8)

공부는 따분해요. 잘 안 되는 걸 어찌죠. 그냥 그래
요. 안 되니까 안하고 싶어요(사례 9)

공부는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사례 10)

(4) 학업에 대한 흥미가 생김

청소년들은 꾸준한 학습지도와 일관성 있게 대하는 태도
를 통해 책 읽는 것에서부터 성적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학업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기 시작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단순히 학업에 대한 흥미 차원을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
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시기도 하고 책 읽는 것도 재밌
어요. 그 전엔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사례 1)

방학 동안에 선생님과 1학기에 관한 과목 공부를 했
거든요.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번 중간고사를
봐야 성적은 알겠지만 몰랐던 문제들 거의 알게 되서
좋아요(사례 2)

1학기 수업내용 전부를 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선생

님을 믿으니까 수업하는 것도 재밌어요(사례 3)

사실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수학에 대해서 몰랐던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이 항상 옆에 있다는 걸 아니까 많이 알게 되었어요(사례 6)

많이 몰랐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선생님 만나고 좋아진 것 같아요(사례8)

수학이 조금 재밌어졌어요. 그래도 어렵긴 해요. 예전엔 수학책만 보면 바로 고개 돌렸거든요. 지금은 책을 들춰보는 게, 이 문제집 다 풀고 갈 거예요. 그냥 관심 가져주는 분이 계시니까...궁금해지는 게 생겼어요(사례 10)

(5) 성적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김

청소년들은 종전과는 달리 기초학습에서 다음 단계로의 학습과정에 대해 흥미를 갖기도 하고, 시험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다.

이번에 수학이랑 영어 중간고사를 다음 주에 보는데 아마 등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자랑할거예요(사례 1)

이번 10월 중간고사가 있는데 그때 성적이 아마 오를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 맘이 생겼어요(사례 2)

전교에서 83등이었는데 73등으로 10등 올랐어요. 할머니도 좋아할거구, 선생님이 나도 잘하는 게 있겠거든요.(사례 3)

저, 성적이 쑥 향상됐어요. 수학 C반이었는데 B반으로 올라갔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해 보랬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요(사례 4)

이번 중간고사 때 성적 잘 나올 거라고 나한테 그러시던데요?(사례 6)

수학 공식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라고, 예전엔 그런 말 들은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번 시험 잘 볼 것 같아서 기대돼요(사례 8)

사실요, 수 개념도 몰랐던 거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자리 수 계산도 할 수 있어요(사례 9)

(6) 학습 습관이 생김

청소년들은 이전에는 책상에 앉기조차 싫고, 책을 쳐다보기도 싫었으며, 숙제를 해가지도 않고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삶이었던 것에서 서서히 책상에 앉는 습관을 들이고, 혼자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지며, 반복된 학습과정을 통해 서서히 학업에 열중하고 집중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숙제 꾸준히 아주 열심히 해요. 전엔 숙제 안 해 가는 날이 태반이었거든요. (사례 1)

책도 자주 읽고요. 책 가지고 도서관 갔어요. 같이 가니까(사례 3)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책상에 앉으면 잠만 잤었는데, 봐주는 선생님 때문에 못 자요(사례 5) 뭐랄까, 나 혼자도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냥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옆에 항상 있어요(사례 8)

한자교재 다시 한번 써 보고, 수행평가 연습하고, 외우고, 써보고, 또 연습하고. 예전엔 지루했는데 조금씩 할 만한 거 같아요. 선생님도 지루한데 나때문에 하는 거래요(사례 10)

(7)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됨

청소년들은 반복적인 학습과 관심, 그리고 지지와 격려를 통해 학업수준이 향상되고, 학업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저, 교원대 가는 게 꿈이에요. 선생님이 꿈이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사례 4)

할머니가 애쓰시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고 싶어요(사례 7)

꿈이라는 거 생각해본 적 없었어요.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컸으면 하고 바라기만 했는데, 이젠 뭔가를 하면, 자꾸 하다보면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도 존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조금 해봤어요. 할머니, 고생 안시키고 싶어요(사례 9)

동생이 있는데, 제가 돌봐야하니까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졸업하고 나면 좋은 학교도 가고 싶어졌어요(사례 10)

2. 또래관계

또래관계와 관련된 범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의 하위범주와 17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청소년들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원활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으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집단에 소속되기 보다는 혼자 하는 일에 익숙해있던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학업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학습습관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Table 3. Peer Relationship

구분	개념	하위범주	범주
개입 전	· 신장이 작아서 친구들과 사이에 열등감이 있었음	· 열등의식 느낌	또래 관계
	· 내성적이어서 친구관계에 소극적이었음 ·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함	· 잘 어울리지 못함	
	·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있었음 · 친구와 말하는 것도 귀찮고 말할 사람이 없었음 ·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말 수가 적었음 · 주도적으로 말을 이끌어 나가기보다 수긍하는 편이었음 · 단답형 위주로 이야기 함	· 의사표현에 서툰	
	· 친구들이 썩지 않는다는 이유로 놀아주지 않음	· 따돌림 당함	
	· 또래와 놀기보다 혼자 놀기를 더 즐겨함	· 혼자 있기에 익숙함	
개입 후	·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놀 때 자신감이 생김	· 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김	
	· 친구들을 집으로 놀러오게 하고 선생님한테 소개하기도 함 · 친구들을 불러내기도 하고 연락을 자주하게 됨 · 친구들과도 얘기하게 되었고 마음 맞는 친구도 여러 명 사귀게 됨 ·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음	· 또래와 잘 어울림	
	· 친구들과 놀 때 먼저 말을 걸거나 장난을 치게 됨	·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음	
	·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음을 알게 됨	· 의미 있는 관계 맺기에 흥미를 갖게 됨	

(1) 열등의식 느낌

청소년들은 또래보다 작은 신장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조부모와 동거하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지나친 조속함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자신없어하고, 비판하는 등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다.

친구들은 키가 큰데 저는 작아서 아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나를 이렇게 작게 나오셨나(사례 1)

친구들보다 작으니까 놀기가 그래요. 안 놀아줄 것 같고, 자신 없어요(사례 2)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살았는데,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러세요. 할머니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죠. 친구엄마가 저더러 눈치를 많이 본다며 편하게 지내라는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요(사례 5)

(2) 잘 어울리지 못함

청소년들은 대체로 내성적이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극적이고 또래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또래들 사이에서 배제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

운동부니까 친구들과 만날 기회도 적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친한 친구가 거의 없어요(사례 3)

친구들이 잘 썩지 않는다고, 냄새난다고 싫어해요.

지금은 안 그런것 같은데도 예전 생각나서 친구들과 지내기 그래요(사례 4)

(3) 의사표현에 서툰

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과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아 자신의 의사를 적절 표현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친구랑 이야기 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친구가 너무 말이 없다고, 말 못하냐고 놀리기도 해요(사례 2)
사람들이 물으면, 친구가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네, 아니오 로만 대답을 해요. 다른 말로 대답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해요?(사례 4)

친구들 앞에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고 쑥스러워요(사례 6)

(4) 따돌림 당함

청소년들은 또래들에 비해 공유할 수 있는 대화주제가 많지 않고, 외형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차립인데다 세대 차이가 많은 조부모와 오랜 생활을 해왔으므로 어투가 차이가 있고,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키가 작잖아요. 친구들이 안 껴줘요(사례 1)

친구들은 영어학원이다, 수학학원이다 열심히 다니는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 봐도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나만 이상한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사례 4)

친구들은 웃도 엄마가 챙겨주고, 나는 엄마도 없고 할머니는 촌스러워요. 친구들이 은근 따들려요.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슬금슬금 피하니까요(사례 6)

학원에 안 다니까 다니는 애들과 짝이 안되잖아요. 공부 못한다고, 같은 학원 안다니한다고 안 놀아주곤 해요(사례 10)

(5) 혼자 있기에 익숙함

청소년들은 자신의 세대가 아닌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또래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어른들과 어색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먼저 학습하고, 낮은 경제적인 수준으로 인한 생활 상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또래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지게 된다.

집에 있어도, 학교에 가도 재밌지 않아요. 혼자가 켈 편해요(사례 5)

친구도 별로 없어요. 다 귀찮고 집에 와도 말할 사람도 없어요. 이젠 그러려니 해요. 언제나 나 혼자인걸요(사례 8)

그냥 혼자 놀아요. 그냥 그렇게 해요. 또래와 노는 것보다, 친구들은 괜히 비교되니까 혼자있는 게 편해요(사례 9)

(6) 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김

청소년들은 조부모와의 단조로운 인간관계로부터 새로운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속에서 지지를 받고 수용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또래와의 관계에서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예전에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생각도 못했어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친구들이 왔다가 다시는 안 만나 줄까봐. 그런데 지금은 신경 안 써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냥 똑같이 대하면 알아주는 거래요. 친구들을 가끔 집에 데려오곤 해요(사례 3)

성적이 좋아지니까 친구들도 나를 다르게 보는 것 같고,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에요. 나를 믿으면 성적도 좋아지고, 친구들하고도 친해진했어요(사례 7)

친한 친구도 생겼고, 집에 자주 데려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요. 선생님한테도 소개시켜 줄게요(사례 8)

(7) 또래와 잘 어울림

청소년들은 성적이 향상되고, 또래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지지를 받는 경험을 하면서 또래들과

빈번하게 어울리고 또래라는 집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밝아졌대요. 선생님이랑도 친구먹었거든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연락도 자주 와요(사례 2)

공부에 대해 조금씩 관심 갖게 되다보니 친구들과도 얘기하게 되었고 마음 맞는 친구도 여러명 사귀게 되었어요(사례 3)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긴 하죠. 그건 제일 재밌는 일이에요. 친구들과 잘 지내요. 가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요. 선생님이 애들과 싸우는 것도 배우는 거래요. 왜 그런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사례 6)

친구 엄마가 절 보더니 예전보다 명랑해졌대요. 친구랑 사이좋게 놀라셨어요. 왠지 기분이 좋아요. 나도 가끔 선생님이 엄마같아요(사례 8)

애들하고 같이 게임하러 피시방 가고 그래요. 예전엔 혼자 피시방가서 몰래 혼자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있고, 선생님도 조금만 하렸거든요(사례 9)

(8)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음

청소년들은 과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친구들의 일방적인 관계 맺기 방식에 이끌리던 것에서 점차 자신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친구들은 찍어뒀다가 집에 가서 놀자고 먼저 얘기해요. 친하다고 해도 마음에 안 맞는 친구들은 그냥 건성으로 지내기도 하고, 괜찮은 엔지 지켜볼 때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랬대요. 나만했을때(사례 7)

친한 애들은 저더러 끼가 있대요. 분위기를 쥐고 혼든다는 애들도 있어요, 연예인 같대며. 분위기를 이끌어 가죠.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 듣기 싫을 때 많았는데, 자꾸 들어서 내가 짱인 것도 같아요(사례 8)

(9) 의미 있는 관계 맺기에 흥미를 갖게 됨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또래들과는 달리 부모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일의 소중함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으나 자신을 수용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경험을 통해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데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된다.

자원봉사 할래요. 봉사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이 좋아졌어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래요. 할머니처럼, 선생님처럼(사례 10)

3. 가족관계

가족관계와 관련된 범주는 <Table 4>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7개의 하위범주와 21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청소년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무관심한 관계 속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가족구성원 간 유대관계나 결속력, 응집력이 미약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알며, 다른 구성원들과 관심을 공유하고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갖는 결속력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

(1) 무관심함

청소년들은 나이가 많은 연로한 조부모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서 지나치게 조심하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거나 열악한 경제사정, 부모 대신 조부모가 자신을 돌보는데 대한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모와 같은 자연스런 관계를 맺기 어려운데서 비롯된 무관심한 태도로 생활하게 된다.

할머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매일 지겹다는 소리만 하시고, 내 말도 이해 못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부모님도 아니신데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나쁜 맘먹으면 안 돼요(사례 1)

할머니랑 있으면 재밌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있는게 더 재밌죠. 할머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묻지도 않고 신경질만, 짜증만 내요. 이제 더 이상 화도 안 나고, 왜 그러냐고 묻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까,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요(사례 5)

할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요. 할머니도 그렇고. 내가 알아서 챙겨먹고, 알아서 학교가요. 화만 안내면 좋겠어요(사례 6)

할머니가 뭐라시면 잘 안 듣게 돼요. 맨날 같은 말만 하니깐, 니 부모 닮았다, 웬수다..자식 복 없는데 뭘 바라시며 그러니까 말 잘 안 들어요. 말해도 모른 척 해요. 빨리 커서 집 나갔으면 좋겠어요(사례 7)

(2) 의사소통이 어려움

청소년들은 조부모와 세대차이로 인해, 부모 대신 자신을 돌본다는 데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동거하는 동생에게는 욕박지르거나 지시적, 권위적 방식으로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형이나 오빠, 누나들에게는 저항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하게

Table 4. Family Relationship

구분	개념	하위범주	범주
개입 전	· 할머니도 자신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신도 할머니에 대해 관심이 없는 편이었음	· 무관심함	
	· 할아버지가 소리를 자주 질러서 주눅이 들고 학교생활도 힘들 · 할머니와 말을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물어도 대답도 잘 하지 않음. · 할머니가 말을 걸 때 짜증을 낼 때가 더 많음 · 할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없음 · 할머니가 말 걸 때 통명스럽게 이야기 함	· 의사소통이 어려움	
	·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재미없고,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림 · 할머니와 나눌 이야기가 없고 말수도 적음 · 할머니 말을 잘 듣지 않고 속을 씩임	· 관계가 미약함	
개입 후	·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게 됨 · 내 생각을 할머니한테 말로 표현함	·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됨	가족 관계
	· 할머니가 뭘 물어봐도 이제 대답도 잘하고 목소리도 밝아짐 · 할머니나 동생한테 예전보다 관심을 갖게 됨	· 관심을 갖게 됨	
	· 할머니 말도 잘 듣고 활발해졌으며,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 같고 맛있는 것도 해 주심 ·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짜증내는 횟수가 적어졌음	· 의사소통이 원활해짐	
	· 할머니가 모르는 진로문제에 대해서도 알려줄 만큼 친하게 됨 · 할머니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 하게 됨 · 여전히 무뎠지만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짐 · 할머니가 자신을 챙겨주고, 자신도 할머니를 챙겨주는 것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느껴짐 · 갑자기 일이 생기면 가족들한테 말하게 됨 · 늦게 집에 돌아가는 경우 늦는다는 전화를 하게 됨	· 결속력이 생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마구 소리를 치세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요. 할머니도 불쌍하고, 화가 나요(사례 2)

중학교 입학하면서 말이 별로 없어졌어요. 원래부터 말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더 그래졌어요. 할머니가 물어도 잘 대답 안하고 괜히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그래요(사례 3)

할머니는 부모님 대신 우리를 돌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맘에 안 들어도 화를 낼 수도 투정을 부릴 수도 없어요. 그냥 맘에 안 들어도, 먹을 반찬도 없고, 집안이지저분해도 맘 안 해요(사례 5)

선생님이 부모님과 진로 고민하러하는데, 부모님 모시고 오라는데 할머니한테 말 안했어요. 해봤자 소용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테니까(사례6)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꿈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으니까.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요(사례 7)

동생은 짜증나요. 쪼그만게 조르고 해달라고 막무가내예요. 안 들어주고 소리치고 말죠(사례 9)

형은 나만 잘못한다고 그래요. 자기도 잘 하는 것 없으면서, 자기도 나랑 같은데. 잘난 척 도사예요(사례 10)

(3) 관계가 미약함

청소년들은 가족 간에 잦은 대화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공유할 거리의 부족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로서의 유대가 약하다.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말할 이유도 없고, 할머니랑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내 맘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줄 것 같지도 않고요(사례 2)

할머니는 정이 없는 것 같아요. 큰소리만 내고 잔소리만 많아요. 잔소리대왕이에요(사례 8)

(4)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됨

청소년들은 서서히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말로써 표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가족구성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가족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한번은 할아버지! 자꾸 그렇게 저한테 소리 지르면 제가 주눅 들어서 더 일도 못 하게 되고 학교에 가서도 힘들 잦아요했더니 할아버지 두 눈이 동그해진 적 있어요. 선생님은 내가 소리질러도 그냥 들어줘요. 바보 같

애(사례 1)

예전엔 할머니가 뭘 물어봐도 대답도 하기 싫고 들은 척만 척 했었는데, 이젠 할머니가 뭐하고 하시면 얼굴을 봐요. 선생님이 눈을 보랬어요. 그러면 알아줄 거렸어요(사례 3)

할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더니 할머니 얼굴이 달라보였어요. 화만 내고 소리만 치시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한번 그렇게해보래서, 자꾸 그렇게해보면 될 거라서...(사례 5)

(5) 관심을 갖게 됨

청소년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태도에서,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기대로부터 차츰 자신 이외의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관심을 먼저 표현하고,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어느 날은 갑자기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 나한테 할말 없어? 하고선 사랑해~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도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해줬어요. 그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참 좋았어요. 할머니가 다정하게 구니까 좋대요. 선생님하고 집에 그랬을 땐 이상했는데, 참 이상한 선생님이다...(사례 1)

선생님이 지도하고 나서 말도 잘 듣고 특히 활발해졌대요. 내가 좋으니까, 할머니가 왠지 나를 정말 아껴주시는 것 같고, 할머니도 기분이 좋으신지 맛있는 것도 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사례 2)

할머니가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냥 진학 문제 얘기를 했더니 좋은 학교 가야할 텐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싶어요. 선생님도 내 말 들어주셨거든요. 그냥 맨날, 내가 신경질내도(사례 3)

(6) 의사소통이 원활해짐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가족구성원, 특히 조모가 자신의 학업이나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가족코치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츰 가족구성원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소통의 원활함을 경험하게 된다.

예전엔 할머니가 무서워서, 자신이 없어서 내 생각을 말하는게 우스워질까봐 안꺼냈거든요. 이젠 말할 용기도 나고, 내가 하고 싶은거, 내가 먹고 싶은거, 내 맘에 안드는 걸 얘기하게 되요. 할머니도 예전보다 들어주는 것 같고, 화를 덜 내시니까요. 선생님도 화 잘 안

내요. 그냥 내가 이쁘대요. 이상해요(사례 5)

할머니랑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선생님이랑 얘기하니깐, 그냥 들어주니까. 자꾸 물어봐요. 할머니도 나도 짜증을 덜 내게 된 것 같아요(사례 7) 할머니 잔소리는 여전히 심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거니까 그냥 모른척 듣고 있어요. 가끔 할머니가 눈치보는 것 같긴 한데, 예전처럼 욕박지르지도 않고 나도 고분고분하게 있어요. 선생님이 관심 있으니까, 할머니가 내가 좋으니까 잔소리하는 거였어요(사례 10)

(7) 결속력이 생김

청소년들은 대화시간이 늘고,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학교 생활이나 자신의 일상을 나누는 과정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가족, 우리 가족이 제일 좋죠. 친구보다 가족이요. 선생님도 예전엔 가족이 싫을 때 있었대요(사례 1)

할머니가 내가 말도 잘 안 듣고 속을 썩을 땐 갖다버리고 싶으셨는데 지금은 키고 작고 건강하지도 못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게 컸나시며 걱정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곤 하세요. 그럴 때면 잘해야겠다, 할머니한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요. 선생님한테

태도 나처럼 말 안 듣는 애 있대요(사례 2)

공부방 갔다가 늦을 땐 꼭 할머니한테 전화하게 되요. 선생님이 할머니가 걱정했었어요(사례 3)

할머니한테 오늘 일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늘었어요. 그냥 걱정하실까봐,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그래져요. 선생님이 시켰어요(사례 4)

할머니한테 전화 와서 어디냐고 물으면 기분도 괜히 좋아지고. 옛날엔 그런 거 전화 같은거 안했거든요. 집에 늦게 오면 큰소리만 치고. 집에 들어가기 솔직히 싫었던 적 많아요. 근데, 지금은 집에 가고 있다고 말해요(사례 6)

누나한테 말하게 되요. 누나가 지금은 엄마 같다는 생각, 솔직히 할머니 보다 더 들어요. 누나가 예전엔 몰랐는데 날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엄마가 누나 대신이었어요(사례 8)

4. 의미 있는 타자

의미 있는 타자와 관련된 범주는 <Table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8개의 하위범주와 21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청소년들은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 또래들과는 다른 가족환경, 제대로 돌봄과 양육을

Table 5. Significant Others

구분	개념	하위범주	범주
개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약점이거나 수치스런 부분, 어려운 점을 표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음 ·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만나는 시간마다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었음 · 전화 연락을 피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음 · 대답하기를 꺼려하였으며 학습 지도 시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도 하였음 ·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함 	관계 맺기를 두려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대답만 하는 정도였으며, 만나기 싫다고 투정부림. · “네”, “아니오”로 단답형 대답이 대부분이었음 · 수줍음이 많아 이야기 나누기를 어색해함 	수동적 의사소통을 함	
개입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과 친해지면서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할머니를 예전과 같이 대하지 않게 됨 	가족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김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처럼 편하고 공부도 잘 알려줘서 좋음 · 영화 관람도 같이 하면서 더욱 친하게 지낼 사람이 처음으로 생김 · 약속시간이 기다려지고 뭔가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김 · 초등학교 학부모 상담기간에 맞춰 선생님이 방문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함 · 학습지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방문할 선생님이 언제 올지를 기대하게 됨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거리낌 없이 서로 얘기하게 됨 ·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가끔 이야기 하게 됨 · 여자 친구 얘기를 할 만큼 선생님을 엄마처럼 생각하게 됨 ·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할 정도로 가까워짐 	내면의 세계를 공유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도 먼저 잘하고 물어보면 상냥하게 대답함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됨 	생활태도가 바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을 자주 만난 후로 친구들이 놀리지도 않고 친해지고 싶다고 함 	성격이 밝아짐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위축감이나 낮은 자존감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의미 있는 중요한 타자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미래에 중요한 타자가 되고자 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1) 관계 맺기를 두려워함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폭은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제한적이고,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

나는 약점이나 말하기 어려운 거, 수치스러웠던 거 있잖아요. 그런거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적도 없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사례 1)

선생님 오는거, 만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었어요(사례 3)

선생님이 전화할 때마다 피하고 싶고, 사실 안 받고 싶었어요(사례 6)

선생님이 물으면 대답하기도 싫었고, 전혀 아무 말도 안했었어요(사례 8)

왜 사람들과 내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나는 그럴 필요 못 느껴요(사례 9)

형식적이잖아요, 선생님도 돈 받으니까 오는 거고(사례 10)

(2) 수동적 의사소통을 함

청소년들은 대부분 유년기부터 조부모에 의해 성장하여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방식보다는 노년기에 있는 조부모의 특성이 반영된 일방적 소통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대답만 하는 정도였어요, 만나기 싫으니까, 그냥 무조건 싫으니까(사례 2)

원래 누가 물으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저예요(사례 4)

다른 애들은 말 잘하는데 나는 수줍고 어색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사례 5)

내가 잘 하는 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글썄요. 잘 모르겠는데요(사례 7)

(3) 가족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김

청소년들은 서비스 제공자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음으

로써 부모와 같은 정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서상태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선생님과 친해지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름도 많이 늘고, 손도 통통 부어있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할머니도 늙으셨구나, 할머니한테 예전처럼 대들지 않게 됐어요(사례 10)

(4)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게 됨

청소년들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또래들이 부모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학습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조부모 관계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을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과 같은 관계를 맺었던 방식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나 또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선생님이 묻지 않으셔도 재잘재잘 대요. 선생님이 내가 말 안했을 때도 좋했어요.(사례 1)

여기 오는 형이 형처럼 편하고 공부도 잘 알려줘서 좋아요. 나한테도 형이 생긴 것 같아요(사례 2)

선생님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웠어요. 친하고 싶어졌어요. 어른인데, 처음이에요(사례 4)

선생님이 안 오시는 날은 전화해서서 숙제 했나, 숙제 검사도 하시고 얘기 나누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도 모르게 오늘 있었던 일도 얘기하게 돼요(사례 5)

선생님하고 공부시간이, 약속시간이 기다려지고. 뭔가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거랄까? 그전에 땡땡이칠 때 있었는데, 집에 있는 선생님보고 질릴 때 있었거든요. 거짓이다...근데, 자꾸 시간이 가는데 똑같아요(사례 6)

학교에서 부모님 상담시간 있었는데 부모님 대신 선생님이 방문해주기를 기대한 적 있었어요. 참엔 싫었는데. 왜 우리집에 오냐고 신경질 냈었는데(사례 8)

선생님이 하는 학습지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은 언제쯤 선생님이 오시나 현관문을 자꾸만 보게 되요. 되게 싫었어요. 선생님이 오는 것도(사례 9)

(5) 내면의 세계를 공유하게 됨

청소년들은 세대가 다른 조부모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생, 누나, 오빠, 형 등과 자신의 내면세계를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와의 의미 있는 교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개방하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친구들이 힘들게 했던 일, 선생님한테 꾸중받은 일, 야단맞은 일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 하게 되요(사례 3)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가끔 이야기 하게 되요. 할머니랑 선생님랑(사례 4)

엄마같아요. 선생님이 엄마처럼 잔소리 되게 많이해요. 저 교회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주 교회에 가요. 여자 친구 얘기를 한 적 있어요(사례 8)

(6)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게 됨

청소년들은 조부모와의 오랜 생활을 통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일방적, 지시적 소통방식에 익숙해지던 것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지지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방식의 소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쌍방향 소통을 경험하게 된다.

선생님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고, 먼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선생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냈어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였어요(사례 4)

선생님한테 숙제 하려고 해도 잘 안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도 오시면 좋겠어요 하고 말해요. 첨엔 안 그랬어요. 자꾸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사례 7)

(7) 생활태도가 바뀜

청소년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 대신 자신을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지나친 죄의식으로 인해 주눅이 들거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일방적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생활패턴으로부터 벗어나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선생님이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해서 그러려고 노력해요. 선생님은 내가 약속 안 지켜도 항상 오니까요. 친구들이 나를 다시 보는 거 같아요(사례 5)

학습 지도 시간은 잘 지키려고 해요. 배우는 거 재밌다고, 선생님도 좋다고 말해요. 예전엔 싫다, 아니다가 전부였거든요. 선생님은 약속 잘 지켜요. 선생님이 좋다고 말할 때 사실 안 믿었는데 맨날 같으니까 나도 해보려구요(사례 9)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좋지 않거나 학업에 무관심하였으며, 학습동기가 부족하고 심하게는 학업에 대한 거부반응까지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학업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학습습관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청소년들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원활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으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집단에 소속되기 보다는 혼자 하는 일에 익숙해있던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래들과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또래들과 관계를 맺게 되며,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조손가정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나 결속력, 응집력의 미약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소통, 관계 맺기 등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알며, 다른 구성원들과 관심을 공유하고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갖는 결속력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넷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청소년들은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 또래들과는 다른 가족환경, 제대로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위축감이나 낮은 자존감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의미 있는 중요한 타자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미래에 중요한 타자가 되고자 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 시기에 있는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사회구조적으로 취약성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학업 성취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학업과 관계 맺기 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지원과 긍정적

인 성인역할모형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정서지원과 상담교육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입이 필요하다.

REFERENCE

- An, E.(2009). *A Grounded Theoretical Approach on the life experiences of Grandchildren of Grandparent-Grandchild family*.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Bae, J. & Chung, J.(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entoring Program for the Adolescents of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in Rural Areas, *Studies on Korean Youth*, 20(1), 5-28.
- Cho, Y.(2001).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4, 1-10.
- Choi, H.(2004). The impact of types of grandparent caregiving on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grandparents and adult children.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3), 31-49.
- Choi, H.(2006). Social Support for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Its Effects on Grandparent Caregive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2), 115-142.
- Choi, M. & Lee, J.(2007). Loneliness of the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0(2), 33-43.
- Forehand, R, Middleton, R & Longo, N.(1987). Adolescent functioning and consequence of recent parent divorce and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8, 305-315
- Green, Y.R.(2006). *Birth Parent involvement in kinship families Custodial Grandmothers' Percep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Y.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 Gyu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2003). 농촌 여성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Han, G., Joo, J. & Jeong, D.(2009). Life course perspective on social exclusion and adjustment of poor custodial grand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6, 87-122.
- Han, K.(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Rural Grand parent-grand children Family*.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Huh, N.(2004). Kinship care and foster family homes and their service desi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8, 243-270.
- Jeon, C.(2007). *Factors affecting on ego-identity of teenagers in grandparents-grandson family*. master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Jeong, D.(2007).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custodial grandparents in low socio-economic clas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Jeong, I.(2004). *Formation of grandparents maintained families and adjustment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rural communities; in Gyungsbukdo*. doctoral dissertation. Gyungsbuk University, Daegu.
- Kim, D.(2006). *Psychological Well-being Custodial Grandmothers and Related Factor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H.(200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emotion and behavior i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2002).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pover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J.(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fe-world of Adolescents from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9), 223-248.
- Kim, M. & Kim, H.(200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grandparent's life satisfaction in low income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4(3), 153-170.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2009). *National Current Research of Crisis situation in Adolescent*.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Lee, H.(2007).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hildren's long-term boarding care at surrogate foster hom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8(6), 52-72.
- Lee, J. & Choi, M.(2007). Behavioral problems of the grand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according to home environmental properties. *Korean Journal*

- of Play Therapy*, 10(1), 63-72.
- Lee, W.(2006). Determinants of Family Functioning among Custodial Grandparen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2, 327-355.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10). 조손가족 실태조사.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11).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운영 매뉴얼.
- Na, S.(2008).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ladjustment of Grandchildren Raised by Custodial Grandparents in Rural Area*.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Oh, S., Chang, H. & Cho, Y.(2006). A Case Study on Experience of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0(4), 577-604.
- Ok, K.(2010).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103-114.
- Park, J.(2005). *Study of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type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the children in poor grandparent-grandchild family on the children's school adaptation*. master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Rue, J. & Cho, A.(2007). The examination of the school resilience model among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49-69.
- Seo, S.(2010). *The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and grandmother's parenting stress in grandparent-grand children family on grandchildren's depression and aggressiveness*. master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 Shin, E.(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of grandchildren-headed hom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ir grandchildren : focused on their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agu.
- Sung, J.(2001). *A Study on Depression and Anxiety of Grandchildren Parented by their Grandparents in Povert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ang, S.(2003).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Foster Care Types and Factors of the Adjustability for the Foste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5), 131-148.
- Yoon, H. & Jang, H.(2011). *Understanding of grandparents as parents :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 7th ordinary science lecture meeting of Society of Parent Education, Paper, 87-108.

접수일 : 2012년 05월 25일

심사일 : 2012년 06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19일